2023학년도 2학기 기말과제물(온라인 제출용)

|  |  |  |  |
| --- | --- | --- | --- |
|  | **교과목명** | : | 철학의이해 |
|  | **학번** | : | 202234-153799 |
|  | **성명** | : | 한승환 |
|  | **연락처** | : | 01028620200 |

EMB000023580f65 ※ A4용지 편집 사용

목록

1. 플라톤의 “향연” 줄거리 요약
2. 플라톤의 “향연”에 대한 감상문

참고자료: 플라톤 “향연” 강철웅 옮김. 아카넷. 2020

1. 플라톤의 “향연” 줄거리 요약

우선 책의 제목인 “향연(symposion)”은 고대 그리스 당시 시민들끼리 함께 모여 잔치를 벌여 술을 마시고 수다를 떠는 문화를 일컫는 말이다. 당시 명성을 떨쳤던 비극작가인 아가톤과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참석한 향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아폴로도로스라는 소크라테스의 추종자가 아리스토데모스라는 또다른 소크라테스의 추종자로부터 전해 들어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화자 역할을 한다.

아폴로도로스는 아리스토데모스가 우연히 소크라테스와 함께 해당 향연에 참석하여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받은 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아리스토데모스는 쉽게 볼 수 없었던 모습인 잘 차려 입은 소크라테스를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고 곧 그로부터 아가톤의 비극대회 우승 기념을 하기위한 향연에 있다는 것을 듣는다. 때마침 그 향연장으로 가던 소크라테스에게 그곳으로 초대받아 동행하게 된다.

모두가 모인 향연에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파이드로스가 먼저 대화의 주제를 제안한다. 파이드로스는 가장 오래되고 훌륭한 신인 에로스를 위하여 찬미하는 연설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본 다음 모두의 동의를 얻고, 가장 첫 순서로 연설을 시작한다.

파이드로스는 에로스야말로 도덕과 행복에 대해서 에로스가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말한다. 에로스는 인간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것들에게는 열망하는 마음을, 추한 것들에게는 수치심을 느끼게 해주는 원천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좋은 것들을 위한 태도와 행동을 통하여 숭고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좋은 애인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아가톤의 후원자였던 파우사니아스의 연설 차례가 되었다. 파우사니아스는 파이드로스의 연설에 깊게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보충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에로스는 하나가 아니라 육체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는 범속의 에로스와 절제와 분별력을 아는 천상의 에로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중용을 잘 지키는 아테네의 법 체계를 찬미한다.

다음 연설 차례로 파이드로스의 친구이자 의사였던 에뤽시마코스가 찬미를 시작한다. 에뤽시마코스는 두개의 다른 에로스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에로스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속해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두가지의 성질을 잘 구분하고 신중하게 대하여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리스토파네스가 연설의 차례를 이어받는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인간은 본래 두명의 몸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안드로규노스라는 형태였다고 말한다. 이 안드로규노스의 상태에서 신들에게 도전하다가 노한 제우스가 인간들을 반으로 잘라버려 현재 인간의 모습이 유래되었다고 말하며, 원래의 반쪽을 찾으려는 열망과 경건함을 바탕으로 에로스의 위대한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한다.

다음 연설 차례였던 아가톤은 비극을 감상하기 위한 수많은 대중들보다 적은 수의 총명한 사람들의 앞에 서는 것이 더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소크라테스와 간단한 질의를 주고받다가 본 연설을 시작한다.

아가톤은 에로스가 무엇인지 정의하고자 하는데 에로스는 가장 아름다우며 부드럽고, 행복하면서 덕이 있는 신이라고 말한다. 에로스는 사나움과 욕망을 친애와 평화의 힘으로 다스려 아름다움과 질서를 만들며, 또한 에로스는 가장 용기 있는 신으로서 절제와 정의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아름다움을 위하여 봉사하는 신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연설 전, 소크라테스는 아가톤과의 문답을 통해 아가톤의 연설에 모순을 발견한다. 이 모순은 에로스가 그 자체로 완벽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이어서 소크라테스는 에로스의 본질에 대하여 말한다. 그는 특이하게도 디오티마라는 무녀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배경으로 찬미 연설을 진행한다.

소크라테스는 에로스가 완벽한 아름다움의 존재가 아니라, 아름다움도, 좋은 것도 아니라고 했다. 즉 에로스는 지혜롭지 않으면서도 무지하지 않은, 그 어느 중간 어딘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에로스는 결핍된 방향으로 따르는, 지혜를 갈망하는 존재라고 에로스를 정의한다. 이러한 에로스를 바탕으로 소크라테스는 서로의 애인만을 쫓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좋은 것이 우리의 곁에 늘 함께 지속하여 있기를 갈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좋은 것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향해 숭고하게 열망하는 사랑은 우리 안에 절제와 정의의 아름다움을 키울 수 있도록 하며 이렇게 성숙해진 영혼은 선하고 철학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고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가 사랑의 단계에 대하여 알려준 이야기를 말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사랑은 가장 먼저 하나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향하여 간 다음에 그 몸이 다른 몸들과 공유하는 아름다움에 대하여 눈을 떠야 한다. 그 다음 단계로 영혼과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고, 외모와 신체적인 아름다움은 사소하게 느껴지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름다움 그 자체를 배우게 되면서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며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고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소크라테스의 연설이 끝나자 모두가 매료되어 칭찬하기 시작하는데,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알키비아데스가 연회에 갑작스럽게 입장하여 소크라테스 옆에 앉은 아가톤에 질투를 하다가, 소크라테스를 위한 찬미 연설을 하기 시작한다.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에게 섭섭했던 일화를 말하면서도 그가 얼마나 위대한 스승이자 사람인지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태연함과 강직함을 가지고 있으며, 깊은 사색을 통해 신성한 진리를 깨닫고, 그가 가지는 깊은 지성과 덕을 바탕으로 남을 배려하고 도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이후 술에 취한 이들이 연회장으로 마구 몰려와 난장판이 되어버린 잔치에서 사랑에 대한 찬미 연설은 막을 내리게 된다.

1. 플라톤의 “향연”에 대한 감상문

플라톤의 “향연”을 읽고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렇게 탐색하고 사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질문들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깊게 느껴졌던 질문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영원 불멸한 것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육체와 외모를 향한 열망인 범속의 에로스를 뛰어넘어 더 높은 수준의 아름다움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대문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연설 중 에로스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부분을 주의 깊게 다시 차근차근 읽어 보았다. 그의 디오티마와의 문답을 따르면 에로스는 어떤 결핍된 것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고, 그것은 곳 그것이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에로스는 불멸하지도 않고 필멸하지도 않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어서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운 것을 갖고 또 그것을 지속하여 갖기를 갈망하는 것, 즉, 불멸의 결핍으로 인한 갈망을 에로스라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에로스는 또한 아름다움 속에서 낳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에로스의 본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시도한 부분을 찬찬히 읽어보고 살펴보면서 불멸에 대한 사랑이란 철학에 대한 사랑이고, 철학에 대한 사랑이란 곧 영원 불멸한 진리에 대한 탐구를 갈망하는 것이라는 답을 생각해 낼 수 있었다.

우리가 만약 동물적 감각과 본능, 욕망에 의존하고 그것 만을 숭배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의 질은 어떻게 될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러한 범속의 에로스에 매료된 삶은 깊이도 훌륭함도 없으며 육체적인 사랑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통해 진실된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삶이 제공하는 무한한 에너지와 그 깊이, 또 그것이 설계되게 한 진실과 진리들에 계속해서 나아가며 의미 있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파우사니아스의 에로스를 둘로 나누는 구분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또, 그와 더불어, 마지막에 소크라테스가 한 연설을 통해 불멸한 아름다움, 즉 절대적인 진리를 향한 철학적 사랑이야 말로 아름다움을 향한 사랑의 최종 단계라는 것을 더욱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다.

플라톤의 “향연”을 읽고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들을 향한 시야를 잃어버린다면 삶이 제공하는 아름다움 그 자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하게 다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삶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밝혀내는 갈망을 통해, 디오티마가 말했듯, 참된 덕 그 자체를 출산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또 공유하는 삶이 에로스가 인도하는 진정한 방향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삶의 의미와 또 그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랑이 가지는 역할과 기능을 알고, 그것이 어떤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지를 깊은 사고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